



위대한 경북 함께 뛰는 300만

경북도청

2003 겨울호



구미시 해평면 태조산 도리사에서 바라본 낙동강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한 사람의 소중한 참여로 사랑의 온도는 올라갑니다!

「희망 2004 이웃돕기」, 1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62일간 실시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희망 2004 이웃돕기」 행사의 일환으로 12월 1일 도청 앞마당에서 '사랑의 체감온도탑' 제막식과 '사랑의 열매 달기' 행사를 개최하였다.

'사랑의 체감온도탑'은 이웃돕기 성금이 모일 때마다 눈금이 올라가도록 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참여로 이웃사랑의 온도를 높여 어려운 이웃들이 훈훈한 연말연시를 보내고 우리의 마음도 따뜻한 정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세운 것이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주관하는 이웃돕기 집중모금기간은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간이며, '사랑나눔 자선음악회' 개최와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동전하나 사랑더하기' 운동을 펼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랑의 온도를 높여 갈 계획이다.

우리들의 따뜻한 사랑으로 이웃의 가슴을 녹여 줄 때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winter Contents

- 2** 2004년도 예산은 이렇게 사용합니다
• 예산총규모 2조7,449억원으로 2003년 대비 11.1% 증가
-
- 6**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12개 전략품목 발굴
• 4개 권역별 발전구상과 연계성 고려, 바이오산업·IT하이테크 집적지역 등 추진
-
- 8** 경북지역 투자기업에 획기적인 인센티브 마련
• 경북에 투자하십시오!
-
- 10** “정부인사혁신상” 전국 최우수도 선정
• 전국 최초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공무원 임용 “신선한 발상”
-
- 12** 도정이모저모
• 경북생물건강산업 사업화지원센터 기공
• 안동 풍산에 경상북도 북부청사 개청
• 외국투자기업 한국유평테크(주) 경북에 100억원 투자
• 구미 디스플레이산업 클러스터 구축 심포지엄 개최
-
- 16** 알아드립니다
-
- 17** 건강이야기 - 건조한 공기는 왜 건강에 나쁠까요?
-
- 18** 자랑스러운 경북인 - 경북농정대상 수상 이규현씨
-
- 20** 가 볼만 한 곳 - 겨울 철새들의 낙원, 구미시 해평면 “낙동강 철새도래지”
-
- 22** 경북의 맛 - 동해안 대게, 과메기
-
- 26** 문화탐방 - 포항문화예술회관
-
- 28** 2003경북스타벤처기업 4개 업체 지정
• 우수한 기술력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래를 선도
-
- 30** 경북 중소기업 상품을 한 눈에, 실라리안 홍보전시판매장
-
- 32** 도정단신
-
- 33** 도의회소식

경북도정 2003 겨울호(통권359호)

발행처 : 경상북도

발행인 : 이 의 근

편집인 : 김 장 주

발행일 : 2003년 12월 31일

인쇄처 : 흥익출판인쇄사

☎ (053) 356-0088

문의처 : 경상북도 공보관실

702-702 대구시 북구 산격동 1445-3

☎ 950-3058, 2031 FAX. 956-4926

예산총규모 2조7,449억원으로 2003년 대비 11.1% 증가

세일즈 경북마케팅 추진 및 농어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 투자

2004년 예산총규모는 2조7,449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2조 4,707억원 대비 11.1% 증가하였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금년 당초예산 1조 9,963억원 대비 10.3% 증가한 2조 2,018억원으로 지방세수입은 국내 부동산거래의 회복세 등으로 11.2% 증가한 5,450억원, 세외수입은 공공요금 이자수입증가 등으로 10.3%가 증가한 543억원이며, 태풍피해의 항구복구를 위해 지방채 400억원 발행, 중앙지원금은 중앙예산확보 노력의 결과 정부예산 증가규모(5.4%)보다 더 높은 9.9%가 증가된 1조 5,625억원 등이다.

또한 특별회계(5종) 예산규모는 금년 당초예산 4,744억원 대비 14.5% 증가한 5,431억원이다.

2004년도 예산의 주요특징

「세일즈 경북」추진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농업한마당을 통해 업그레이드된 문화경북브랜드를 문화마케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경북과학축전, 지능로봇경진대회, 경북패션페스티벌, 국제학술대회 등을 통한 경북과학의 세계화를 추구하고, WTO, FTA 추진으로 어려움에 처한「중소기업의氣」를 살리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각종 지역축제와 연계하여 세일즈 경북마케팅 추진



FTA시행에 따른 과수농가 지원 및 농어업 경쟁력 강화

한·칠레 FTA협정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도내 과수농가에 대하여 고품질 과수생산촉진, 품질향상으로 인한 차별화, 지역특화상품으로 육성하는 지역특화사업, 자연재해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가입지원, 시설재배단지조성, 저온저장고시설, 수출물류비지원 등 농어업분야 대폭 투자

고령화 되어가는 농어촌 일손을 덜기 위해 인력절감형 각종 농기계 구입 신규지원과 국가지원이 중단된 소규모(30ha미만) 경지정리사업을 도 자체사업으로 선정 계속 추진, 또한 어선의 안전수용 및 어업활동의 편의 도모를 위해 방파제, 물량장, 어도시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등 어업기반시설 대폭 확충



태풍피해의 완벽한 복구 및 재해·재난 예방

지난 태풍「매미」와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도민의 불편 해소 및 생활안정을 위해 연례·반복적으로 시행해오던 경상경비와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과감히 축소하여 태풍피해의 완벽하고 항구적인 복구에 최우선 투자, 이를 위해 내년도에는 태풍피해의 완벽한 복구를 위해 투자하고 아울러 향후 재해·재난예방을 위한 재해위험지구정비, 수해상습지 개선 등에 투자 확대



중점 투자시책

지역경제분야

- 「세일즈 경북」추진을 위하여 문화경북브랜드 및 경북과학의 세계화와 세일즈 경북 마케팅 추진으로 경북브랜드의 이미지와 인지도 제고를 통한 적극적인 판로개척을 전개하여 지역경제에 새바람 분위기를 조성, 도민의 “기”를 살리는 행사로 승화 - 신규투자 35억원
- 최근 사회문제로 급부상하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하여 경북도의 특수시책사업인 「인턴공무원제」 실시 7억원, 고용촉진훈련 13억원, 디스플레이산업 전문인력양성 16억원, 공공근로사업 지속 추진 90억원 등으로 청년층 실업난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결
- 전국 최대의 한약재 생산·유통지로서 한방산업육성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할 「상주한방자원산업화단지조성」사업 50억원, 21세기 미래성장산업인 생물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생물건강산업사업화지원센터」 건립 48억원과 경북바이오 테크노 파크 설립을 위한 용역 실시
-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구성운영 41억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 90억원과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150억원 등에 지속적 투자



농축수산 분야의 소득증대로 복지 농어촌 건설

- 고령화되어 가는 농어촌 일손을 덜기 위해 인력절감형 각종 농기계(다목적관리기, 동력제초기 등) 신규지원 - 28억원 (※ 인력절감 효과: 연간 1,017천명, 인건비 절감 연간 254억 정도)
- 국가지원이 중단된 사업을 도 자체사업으로 계속 추진하여 30ha미만 소규모 경지정리사업 407ha, 35억원 투자
- FTA 협정체결에 따른 과수농가 지원을 확대하여 포도 비가림 시설 4억원, 키 낮은 사과원 조성 2억원, 저온저장고 4억원 등과 경지정리사업에 307억원, 논농업직접지불제 694억원, 지방어항시설 117억원, 농업생산기반종합정비 66억원 등 농어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구축사업에 집중 투자

문예진흥과 체육·관광시설 확충

- 문화기반시설의 지속적 확충(문화예술회관, 공공도서관, 박물관 등) 64억원, 전통문화유산 정비를 위해 유교문화권 개발 및 관광자원화 703억원, 각종 문화재 보수 294억원, 문화콘텐츠산업육성 및




경주세계문화Expo 명상품의 수출상품화를 위해 경북관련 영화·드라마제작 20억원, 문화Expo 주제영상 보완·제작 20억원과 천년고도 경주의 역사·문화·관광도시를 대표하는 경주세계 문화엑스포 상징조형물을 건립하여 우리문화 선양을 위한 세계적 관광 명소로 육성하기 위하여 80억원 투자

- 2003년도 전국체전 결과 전국 5위에서 내년도는 4위를 목표로 우수선수 발굴 및 육성을 위해 38억원, 도민체전 개최에 따른 시설비 등 64억원의 체육시설확충과 온천관광지 조성 42억원 등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중점 투자

서민생활안정과 보건복지수준 향상

- 도민의 평생건강관리와 보건의료체계구축 사업으로 보건기관 현대화 및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제공을 위해 보건지소 및 진료소 신증축(20개소) 50억원, 저소득층 무료암검진 실시 11억원,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 48억원 등과 생활보호자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및 주거비지원 1,586억원, 경로연금지원 301억원 및 고령화 시대에 활력있는 노후생활을 도와줄 노인복지기반구축사업과 여성의 지위향상 및 장애인의 재활복지서비스 수준 향상 등에도 많은 배려
- 자연과 함께하는 삶의 터전 마련으로 인간과 자연이 어울어지는 쾌적한 환경조성 등을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확충(47개소) 1,221억원, 오염하천정화사업(10개 하천) 97억원, 환경친화마을지정 육성(10개소) 3억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14지구) 251억원 등 중점 추진

SOC 및 재해·재난예방 강화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확충을 위하여 국가지원지방도사업(8지구) 670억원, 국도대체도로(10지구) 377억원, 도시토목도로 등 지역현안도로사업 194억원, 지방도유지보수사업 48억원 등 지원
- 지난 태풍「매미」 피해의 완전복구를 위해 도로·하천 등 사업비 400억원, 재해위험지구정비(9개소) 65억원, 수해상습지개선사업 465억원 등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기반 강화에 중점 투자 

4개 권역별 발전구상과 연계성 고려, 바이오산업 · IT하이테크 집적지역 등 추진



경상북도에서는 북부권, 중서부내륙권, 남부도시권, 동부연안권 등 4개 권역별 발전구상과 연계한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12개 전략품목을 선정하여 추진키로 했다.

12개 전략품목은 디스플레이 분야(LCD, PDP, 유기EL), 디지털TV, 지능형로봇 분야(IT기반로봇, 극한작업용 로봇), 차세대반도체 분야(나노전자소자), 디지털컨텐츠/SW솔루션 분야(디지털 컨텐츠 제작·이용·유통시스템, 문화컨텐츠, 임베디드SW), 바이오신약 분야(신약, 한방바이오)이다.

|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용어해설 |

LCD(liquid crystal display) : 2개의 유리판 사이에 액정을 주입해 배열한후 전기적인 압력을 가해 각 액정분자의 배열을 변화시켜 이때 일어나는 광학적 굴절변화를 이용, 문자·영상을 나타내는 표시 장치. 1.5 ~ 2V의 전원에서 작동하고 소비전력이 적어 시계, 계산기, 노트북 컴퓨터 등에 많이 쓰임. 영하 20도 이하의 저온이나 영상 70도 이상의 고온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약점

PDP(Plasma display panel) : 플라즈마 표시장치의 표시부분인 표시 패널. 2매의 얇은 유리기판사이의 좁은 틈에 네온 등의 가스를 봉입하고 유리의 내면에 수평방향과 수직방향으로 배열된 투명전극으로 구성. 수평전극과 수직전극은 개별적으로 대전(帶電)될 수 있으며, 대전된 한 조직의 전극이 만나는 점에 있는 화소(Pixel)가 가스 이온화로 발광

유기EL : 음극과 양극에서 주입된 전자와 정공(전자에 대응하는 양의 전하를 띤 입자)이 유기물 내에서 결합하여 빛을 내는 자체발광현상 또는 그 현상을 이용한 디스플레이로 차세대 첨단영상표시장치로 활용

LED(발광다이오드 Luminescent Diode) : 반도체의 p-n접합구조를 이용하여 주입된 소수캐리어(전자 또는 양공)를 만들어내

안동·영주 등 북부권에는 동북아 바이오산업의 거점지역, 구미 등 중서부내륙권은 세계적 IT 하이테크 집적지역, 경산·경주 등 남부도시권은 지식벨리의 메카로, 포항 등 동부연안권은 문화와 소재의 기술혁신거점 지역으로 추진하여 경상북도를 「21세기를 선도하는 동북아 거점지역」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도에서는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전략산업기획단 연구위원과 관련학계 교수, 공무원 등 20명으로 총괄산업팀을 구성하여 전문가의 자문과 설문 등을 통한 포괄적인 세부 검토를 거쳐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6개 산업에 12개 세부품목을 결정하였다.



※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 디지털TV/방송 분야(방송시스템, DTV, DMB, 셋톱박스, 복합기기)
- 디스플레이 분야(LCD, LED, PDP, 유기EL, 3D, 전자종이, 관련소재)
- 지능형 로봇 분야(가정용 서비스로봇, IT기반 서비스로봇, 극한작업용 로봇, 의료지원용 로봇)
- 미래형자동차 분야(지능형 자동차, 친환경 자동차)
- 차세대 반도체 분야(차세대 메모리, SoC, 나노전자소자, 관련 소재)
- 차세대 이동통신 분야(4G단말기 및 시스템, 텔레매틱스)
- 지능형 홈네트워크 분야(홈서버/홈게이트웨이, 홈네트워크링, 지능형정보가전, 유비쿼터스 컴퓨팅)
- 디지털콘텐츠/SW솔루션 분야
(디지털콘텐츠 제작·이용·유통시스템, 문화콘텐츠, 임베디드SW, 지능형 종합물류시스템)
- 차세대 전지분야(2차전지, 연료전지, 관련 소재)
- 바이오신약/장기 분야(신약, 바이오장기, 바이오칩)

고 이들의 재결합에 의하여 발광시키는 것으로 Light Emitting Diode라고도 함. 자동차 계기류의 표시소자, 광통신용광원 등 각종 전자기기의 표시용 램프, 숫자표시 장치나 계산기의 카드판독기 등에 쓰이고 있다

SoC(System on chip) : 이 칩은 이전 디지털복조(MDT) IC, 컨트롤러 IC, 아날로그신호 전송 및 수신(AFC) IC 등 ADSL시스템에 필수적인 핵심 칩셋 3종에 나뉘었던 각각의 기능을 하나의 칩으로 한 획기적인 제품으로 세계적인 반도체 업체들은 이처럼 D램 이후의 대안으로 메모리와 시스템LSI(비메모리), 아날로그와 디지털부품,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등 모든 기능을 하나의 칩에 담아, 반도체가 곧 시스템이 되는 시스템온칩

유비쿼터스 : 라틴어인 '유비쿼터스'는 언제 어디서나 동시에 널리 존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음. 한 종류의 컴퓨터가 현실세계의 사물과 환경속으로 스며들어 서로 연결, 통합되는 것을 의미. 유비쿼터스환경에서는 사물이 마치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기술수준이 발전

임베디드 SW : 유비쿼터스의 핵심기술이자 소프트웨어 분야의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데이터처리장치, 통신장비, 정보가전, 산업전자, 항공전자제어)



경북에 투자하십시오!

지역 투자기업에 투자비의 20% 현금으로 지원



경상북도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획기적인 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 시행키로 했다.

지난 10월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유치단을 신설하는 등 경제관련 부서를 대폭 강화한데 이어 12월 9일 투자유치 관련 각종 제도의 정비를 위해 통상·세무·법제·인사 등 관련부서 합동으로 태스크포스팀(Task Force Team)을 구성, 조례, 규칙 등의 제도정비에 들어갔다.

먼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투자기업에 대해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경제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부지매입비, 공장시설비, 직원고용 및 교육훈련비 등 투자비의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현금지원 제도(Cash Grant)를 도입키로 했다.


또한 지방산업단지와 미분양 농공단지들을 비롯하여 투자가가 대규모 투자를 희망하는 지

역 등을 ‘기업 유치촉진지구’로 지정, 각종 세금감면과 보조금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등 다른 지역의 기업이 도내로 본사 및 공장을 이전할 경우 이전비를 지원하는 이전보조금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도에서는 각종 보조금 지원예산 확보를 위해 투자유치진흥기금 조성 계획을 수립, 각 시·도의 투자관련 조례와 규칙을 전면적으로 비교·검토하여 우리 도의 미비점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학계, 경제계, 외국투자기업 등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도 투자유치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리고 내년 1월중 현행 ‘경상북도외국인투자촉진지원조례’를 외국인 투자 뿐만 아니라 국내기업 유치까지 포함하는 ‘경상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로 변경해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는 한편, 내년 2월 도의회에 상정, 심의를 받아 확정할 계획이다.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하여 경상북도를 ‘기업하기 가장 좋은 투자 최적지’로 만들어 갈수록 치열해지는 투자유치 경쟁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며, 고도기술 수반사업, 산업지원서비스업에 대한 우대제도를 실시하여 디스플레이,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부품소재산업 클러스트 육성 등 지역의 산업구조를 첨단고도산업 중심으로 업그레이드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전국 최초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공무원 임용 “신선한 발상”

여성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등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노력에 긍정적 평가





경상북도가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정부인사혁신상’ 전국 최우수도로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수상하였다.

‘정부인사혁신상’은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획기적인 인사정책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선정·시상하고 우수한 인사제도를 전국으로 파급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올해 처음 실시한 제도로써, 우리 도에서 대상을 수상한 것은 그동안 의욕적으로 추진한 ‘장애인공무원 임용’, ‘인터넷 인사도우미’, ‘여성공무원 30% 할당제’, ‘여성공무원 희망 보직제’ 등의 획기적인 인사정책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으며 높은 점수를 얻은 결과이다.

「인터넷 인사도우미」이란 디지털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현행 인사관리의 방식을 혁신적으로 개선, 직원인사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향상시켜 신뢰받는 인사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지난 10월 13일부터 도입·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직원 누구나 인터넷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본인의 인사관련 희망과 의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는 지금까지 직원들의 개인고충 및 전보희망, 인사교류신청 등을 전화 또는 방문상담 등의 제한된 방법으로 접수함으로써 본인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을 개선하고, 인사 관련자료(정보) 부족으로 인사에 대한 오해가 생겨 결국은 인사불만으로 나타나는 사례 등을 감안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정착을 위해 우리 도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제도이다.


특히 우리 도에서는 전국 처음으로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시험을 거쳐 2004년까지 60명을 공무원으로 채용할 계획을 세우고 올해 27명을 공무원으로 신규 임용하였다.

많은 기업과 정부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않아 부담금을 내고 있는 현실에서 경북도가 앞장서 장애인 공무원을 임용함으로써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무엇보다 신체적 차이로 인해 공정한 기회를 얻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있던 장애인들에게 공무원으로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장애인단체는 물론 도민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고 있다.

또한 여성 공무원들의 인사와 관련하여 ‘여성공무원 30% 할당제’, ‘1과 3여성 배치’, ‘여성공무원 종합 모니터링’, ‘여성공무원 희망보직제’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한 것도 좋은 평가를 받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여성공무원 우대정책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던 여성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사회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 양성평등을 도정을 통해 실현함으로써 “함께 사는 사회” 분위기를 성숙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

어느 조직에서나 마찬가지로 공직사회에서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일은 가장 근본적인 일이다.

우리 도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제도를 꾸준히 발굴하고 개선함으로써 누구나 긍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인사제도의 마련을 위하여 한층 더 노력해 가고자 한다. 


경북생물건강산업 사업화지원센터 기공 안동을 중심으로 도내 북부지역을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경북 북부지역을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 일환으로 설립되는 경북 생물건강산업 사업화지원센터의 기공식이 지난 10월 24일 안동시 송천동 현지에서 개최되었다.


경북생물건강산업 사업화지원센터는 국비 138억원, 지방비 85억원, 민자 6억원 등 22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부지 1만평, 건평 2천평의 지하 1층, 지상 3층 콘크리트 건물로 신축되며, 2004년말에 준공하여 2005년초부터 바이오분야의 연구개발과 바이오 벤처기업들의 지원·육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바이오산업은 다른 어떤 산업보다 에너지절약·친환경 산업으로서 낙동강 상

류에 위치하고 있는 안동을 비롯한 경북 북부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안동 풍산에 경상북도 북부청사 개청 북부지역 주민 민원해결 한층 편리

도는 안동시 풍산을 상리리에 경상북도 북부청사를 건립하여 종합건설사업소 북부지소와 가족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산림환경연구소 북부지소,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등 4개 기관을 이전하여 지난 10월 29일 개청식을 가졌다.

북부청사는 총사업비 72억원을 투입하여 6,025평의 부지에 연건평 1,850평의 건물 4동(본관, 관리동, 동물사육장, 차고) 규모로 지난 2001년 12월에 착공하여 지난 9월에 완공하였으며, 따로 떨어진 여러 기관을 방문하여 민원을 해결하던 번거로움을 덜어주게 되었다. 



외국투자기업 한국옵티칼하이테크(주) 경북에 100억원 투자 구미 외국인기업전용단지에 LCD편광필름 생산공장 기공



일본의 IT필름 전문회사인 교신(주)이 경북지역에 100억원을 투자한다.

투자회사인 일본 교신(주)은 한국의 동양전자(주)와 공동으로 한국옵티칼하이테크(주)를 설립, 1만평 규모의 LCD편광필름 생산공장 기공식을 지난 12월 12일 이의근 도지사와 지역의 주요상공인, 엔도우 야스스케 교신(주) 사장, 카미야마 일본 일동전기(교신(주) 모기업) 부

사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미외국인기업전용단지에서 개최하였다.

한국옵티컬하이테크(주) 구미공장 건설을 통해 150여명의 고용창출은 물론 연간 3천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IT 디스플레이산업에 시너지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구미 디스플레이산업 클러스터 구축 심포지엄 개최

경상북도는 11월 5일 구미 센츄리호텔에서 LG전자 등 업체대표자, 금오공대, 산업자원부 고정식 생활산업국장, 구미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미 디스플레이산업 클러스터구축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디스플레이 산업은 중앙정부에서도 이미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경상북도는 정부의 산업정책과 연계하여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을 추진하고자 우리 도내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구미지역을 디스플레이(LCD, PDP, 유기EL)산업 전략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이번에 열린 산·학·연·관 협력 심포지엄을 통해 중장기 발전전략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제8회「농업인의 날」기념행사 개최 경북농정대상 이규현씨 등 9개 부문별 시상



경상북도는 제8회 농업인의 날을 맞아 11월 7일 대구시 중구 동인동 국제보상공원 화합의 광장에서 이의근 도지사를 비롯한 유관기관단체 및 농업인단체 대표, 농업인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 행사를 개최, 경북농정대상 시상식을 갖고 느타리 버섯생산으로 높은 소득을 올린 성주군 농업인 이규현(42세, 성주군 수륜면 수성리)씨에게 대상을 수여하였으며, 고품질쌀 생산 등 9개 부문별 수상자를 시상하였다.

한편, 이날 행사를 마치고 난 후에는 대구시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에서 쌀 음식 전시와 시식회를 갖고, 대구시민들에게 떡을 나눠주는 등 쌀 소비 촉진 캠페인을 실시하기도 했다.

동호인 클럽축구대회 2003경북리그 성황리에 막내려 우승 포항 백호축구클럽, 준우승 영주 영풍축구클럽

도에서는 2002 한일월드컵에서 한국축구 4강 신화 창조로 고조된 축구열기를 생활체육 활성화로 이어가기 위하여 지난 3월 27일 창설한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클럽축구대회인 「2003경북리그」 시상식을 11월 13일 구미 박정희체육관에서 개최하였다.

경북리그는 도내 234개팀 9,000여명의 선수가 출전, 4월부터 10월까지 지역예선리그별로 총 1,800여 경기를 풀리그로 진행하여 상위 32개팀을 선발하였으며, 11월 8일부터 9일까지 포항 송라경기장 등에서 치뤄진 32강 본선 경기를 토너먼트 방식으로 개최, 치열한 접전을 거쳐 포항 백호 축구클럽이 우승을, 영주 영풍축구클럽이 준우승을, 칠곡 왜관 축구클럽과 영주 영주축구클럽이 각각 3위를 차지하였다.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출범 11월 10일 창립총회 가져

경북도는 21세기 새로운 도약의 준비작업으로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계, 언론계, 종교계, 법조계, 민간단체, 지역자원봉사센터 등 각계 대표 17명을 이사진으로 구성하고 사단법인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를 설립, 11월 10일 창립총회를 갖고 정관, 운영규정 등을 마련하여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는 각종 재해·재난에 적극 대처하고, 국제행사 지원은 물론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며, 아울러 자원봉사센터 인프라 구축, 자원봉사 관리자양성, 활동프로그램 개발, 자원봉사의 네트워크 형성, 자원봉사시책입안 등 명실공히 경상북도 자원봉사의 중심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특경제층이 아닌 전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범도민 자원봉사운동을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문화엑스포, 세계진출 현실로 우루과이에서 2005년 문화엑스포 개최 희망

남미의 스위스라 일컬어지는 우루과이가 우리 경상북도에 자국에서 2005년 문화엑스포 개최를 허락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이는 지난 10월 13일 이의근 도지사의 세계무역센터협회 총회 초청방문을 계기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문화엑스포 개최의사를 밝힌데 따른 것으로서 행사개최를 신청한 첫 사례가 되었다.

특히 2005년 우루과이에서의 문화엑스포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사전 준비와 행사진행에 대한 기획력과 노하우 전수 등 구체적인 협력방안도 함께 요청함에 따라 우리 도는 앞으로 실무팀을 구성하여 우루과이의 문화엑스포 개최를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장기적으로 세계문화엑스포를 통한 실질적 이익을 강구하는 방안도 모색키로 했다.

한편, 우리 도는 'Culture Expo' 상표와 로고 등을 미국 특허청에 등록하여 마드리드협정에 의거해 배타적 권리를 인정받음으로써 문화엑스포 개최를 희망하는 세계 각국은 반드시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

한국일보&우먼센스 선정 「2003고객만족브랜드」 문화산업부문 대상 수상

2003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2003대한민국 파워브랜드 '칸트' 대상」 수상에 이어 또다시 「2003고객만족브랜드」 '문화산업부문' 대상을 수상함으로써 문화브랜드로서의 이미지를 확고히 했다.

한국일보와 우먼센스가 공동 주관하는 「2003고객만족브랜드」에서 2003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올 한해 문화산업 분야에서 가장 경쟁력을 갖춘 상품으로 인정돼 '문화산업부문' 대상으로 선정됐다.

마케팅 전문가그룹에 의해 심사에서 2003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주제를 함축적으로 표현함으로써 행사의 의도를 잘 나타냈고, 63개의 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으며, 지난 행사의 철저한 분석으로 대중성과 다양성을 가미한 지구촌문화축제로서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밥맛 좋은 정부보급종 벼씨 확·대·공·급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에서는 2004년도 고품질쌀 생산을 위하여 밥맛이 좋고 품질이 우수한 정부 보급종 벼씨 2,150톤을 11월 15일부터 2004년 1월 30일까지 77일간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읍·면 농민상담소,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 2004년 3월말까지 농가에 공급한다.

정부보급종 벼씨는 종자관리소 채종포장에서 원종을 재배하여 국가에서 검사를 실시한 종자로 품종 고유의 특성이 잘 나타나 생육이 좋을 뿐만 아니라 현대식 시설에 의해 정선·소독되어 공급되므로 도열병, 키다리병 등 병발생도 적어 농가에서 3~4년간 재배한 자가 채종 종자보다 쌀수량이 6%정도(1ha당 쌀 290kg) 더 생산할 수 있다.

이번에 공급되는 일품벼 등 9개 품종 모두가 밥맛이 좋은 고품질 품종이며, 쌀 품질 향상을 위해 공급량도 평년공급량 1,700톤(소요량의 25%)보다 450톤(7%) 정도 늘려 공급한다.

특히, 벼 보급종 공급가격을 정부수매가 보다 포대(20kg)당 5,070원이 더 비싸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에서는 지방비 5억6천만원을 확보하여 추곡수매가와 같은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다.

종자 신청은 리·동장을 통하여 농업기술센터나 농민상담소에 신청하면 된다. 

(담당부서 : 농업기술원 053-320-0241)





추운 겨울, 실내공간의 적절한 온도와 습도 유지 필수

요즘같이 건조한 시기에는 적절한 온도와 습도가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인체에 가장 좋은 영향을 미치는 실내 습도는 40~60%. 그러나 겨울철에는 대부분의 실내 습도가 40%이하로, 난방과 단열이 잘 되는 아파트나 빌딩의 경우에는 20~30%로 더욱 낮다. 실내공기가 섭씨 30도를 웃도는 건물도 많아 더 건조해지기 쉽다. 이런 곳에서 장시간 생활하다 보면 목의 점막이 약해져 흡연이나 고성 등 조그만 자극에도 염증이 발생하기도 한다.


실내습도, 가습기 사용 효과적

이럴 때는 인위적으로 실내 습도를 높여줘야 하는데 화초나 어항, 젖은 빨래 등을 이용해 일정한 수준의 습도를 유지함으로써 호흡기 점막을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편도선염을 자주 앓거나 담배로 기관지가 약해진 사람들은 이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가습기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가습기를 장시간 가동할 때는 환기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 수시로 창문을 활짝 열어 묵은 공기를 밖으로 빼내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공간에서는 창문 쪽으로 선풍기를 틀어놓으면 한결 공기의 소통이 원활해짐을 느낄 수 있다.

가습기 관리 잘못하면 세균 덩어리

여름철 냉방기에 서식하는 레지오넬라균이 가습기에도 흔히 서식한다. 레지오넬라균은 25~42도의 따뜻한 물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공기 중 물방울에 들어 있는 레지오넬라균이 호흡기를 통해 몸에 들어가면 고열, 오한 등 폐렴과 비슷한 증상을 일으킨다. 따라서 물을 끓이지 않는 초음파식은 깨끗한 물을 사용해야 한다. 갓난아기가 있는 가정에서는 수돗물을 끓인 뒤 식혀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특히 호흡기질환을 예방하는데 가습기를 제대로 이용하려면 용기를 되도록 매일 청소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각종 곰팡이나 포자 등은 장시간 끓여도 잘 죽지 않아 연성세제 등으로 잘 닦아야 한다. 

| 건강 Tip | 가습기 관리 요령

- 최소한 1~2일에 한번은 물통 등을 깨끗이 청소합니다.
- 하루에 한번 이상은 물을 갈아줍니다. 남은 물이 있어도 무조건 버립니다.
- 천장, 벽, 오디오, TV 등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으로부터 떨어진 곳에 설치합니다.
- 가습기를 트는 동안 자주 실내 공기를 환기시켜줍니다.



한방 느타리버섯 재배기술 보급으로 지역 농업발전 이끌어

지난 11월 7일 제8회 농업인의 날을 맞아 경상북도 농정대상을 수상한 이규현씨(성주군 수륜면 수성리), 느타리버섯 재배의 “달인”으로 알려진 전문농업인이다.

그는 10여년 동안의 버섯 재배 경험에서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참나무 숲을 이용한 공기정화와 목초액 살포법, 당귀, 감초, 계피, 인삼 등의 한방약재를 이용하여 만든 한방영양제 살포법 등 독특한 버섯 재배기술을 개발하여 한방 느타리버섯 재배에 성공하였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재배한 버섯은 고유의 향이 살아있고 다른 버섯과 비교해 높은 신선도를 유지하는 등 탁월한



버섯 재배기술로 인정받아 “가야산 한방느타리버섯”의 명성이 전국에 널리 알려지게 하였다.

또한 이규현씨는 작목반을 조직, 협동 영농을 통해 농자재 공동 구입·출하량 조절과 선진기술을 습득하는 등의 노력으로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우수 작목반 및 친환경농업실천단지로 인정받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가야산 한방 느타리버섯”은 전국 버섯상





인들로부터 품질을 인정받아 대도시의 대형 할인점과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 납품하는 것은 물론 지난 2000년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수출하여 해외에서 그 품질을 인정받기도 했다.

그의 성공은 남다른 노력의 결실이다. '89년 곁혼과 함께 버섯 재배를 시작한 이규현씨는 신희시절에도 밤과 낮을 구분하지 않고 일과의 대부분을 버섯 재배사에서 보내며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5년여 동안 시행착오를 거듭하였다. 버섯재배는 종균을 배양하는 것부터 상품으로 출하하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야 하는 등 다른 작물에 비해 재배여건을 맞추기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몇 년 동안의 실패를 밑거름으로 삼아 이제는 누구나 인정하는 “버섯전문가”로 거듭났다.

요즘은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벤처농업대학에 입학하여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데 전념하며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물음에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업이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농산물 전면개방에 대비하여 과학적인 영농을 통해 친환경·기능성 농산물을 생산, 수입 농산물과는 차별화한 질 좋은 농산물로 경쟁력을 키워나가겠습니다”





겨울 철새들의 낙원, 구미시 해평면 “낙동강 철새도래지”

감탄을 자아내는 철새들의 화려한 비상

수만 마리의 새들이 하늘에 떠올라 군무(群舞)를 펼치고 있다. 강 저편으로 날아오를 때에는 먹구름이 몰려가는 것 같기도 하고, 방향을 바꾸어 이편으로 날아올 때에는 흰 구름으로 변하기도 한다. 눈앞에서 펼쳐지는 장관에 저절로 감탄이 새어나온다.

구미시 해평면과 산동면에 걸친 낙동강 일대 9백ha는 철새 집단도래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다. 이 일대는 낙동강을 끼고 있는 비옥한 농경지와 주변의 배후습지가 잘 발달해 있어 예전부터 겨울이면 다양한 철새들이 찾아오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다.

날씨가 차가워지면 이곳에는 멀리 러시아와 중국 등지에서 천연기념물 228호인 흑두루미와 203호 재두루미를 비롯하여 고니, 백로, 왜가리, 기러기, 청둥오리 등 진귀한 손님들이 찾아온다.





이 중에서도 가장 “귀빈” 격인 흑두루미와 재두루미는 보통 10월 중순 무렵 잠깐 이곳에 머물렀다가 일본으로 가서 겨울을 나고 이듬해 2월에 다시 잠깐 들렀다가 중국과 러시아로 돌아간다.

때문에 이곳에서 월동하는 철새들 중에서 가장 왁자지껄한 무리를 이루는 것이 청둥오리와 기러기이며, 고니와 백로, 왜가리들이 간간히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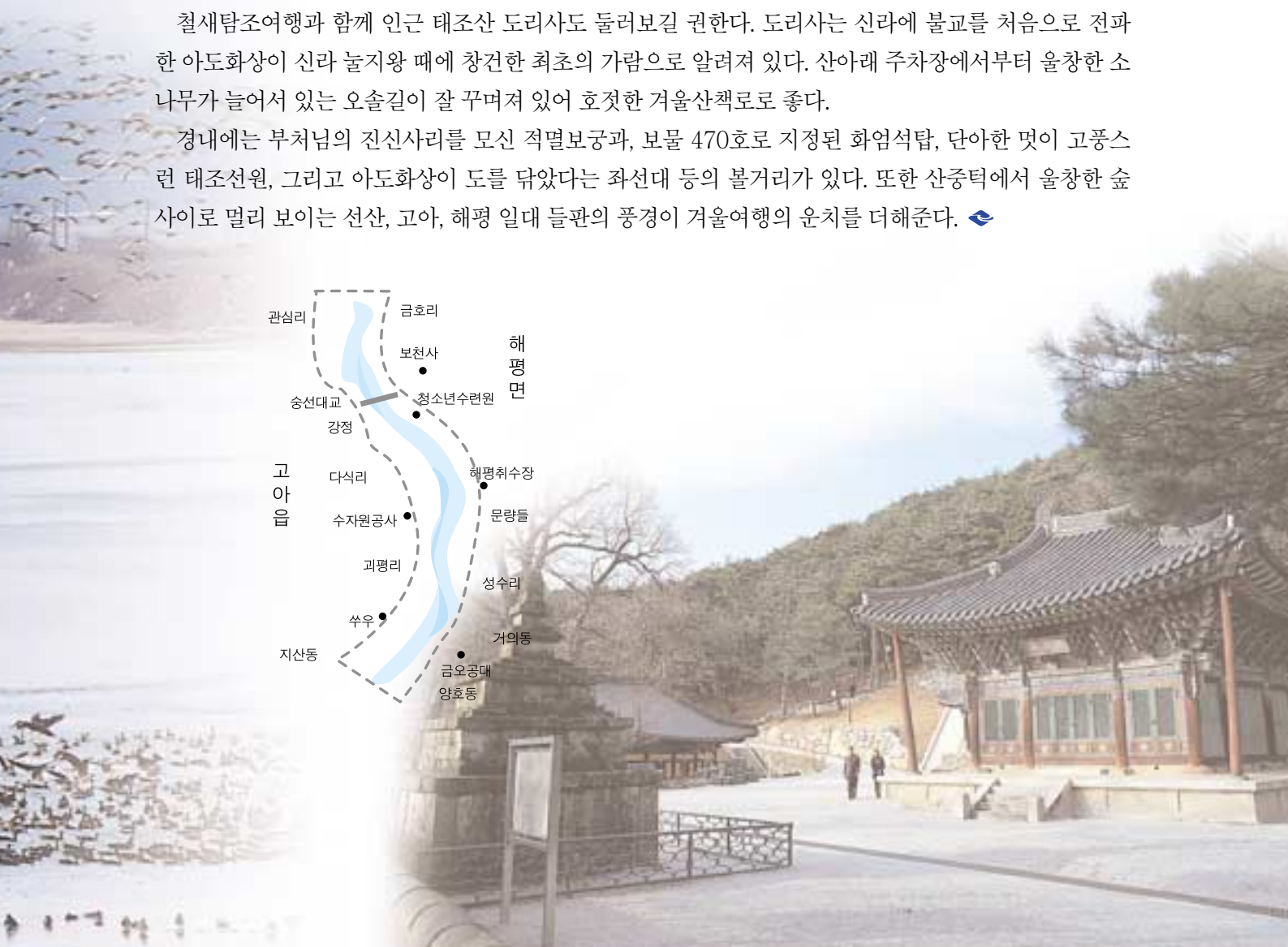
요즘에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철새들을 관찰하기 위해 조류학자와 학생들은 물론이고 일반 관람객들의 탐조여행도 늘고 있다. 그러나 새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지켜야 한다.

우선 새들은 작은 자극에도 쉽게 놀라기 때문에 큰 소리를 낸다거나 가까이 다가가는 행동은 금해야 한다. 가급적이면 눈에 띄기 쉬운 원색의 옷차림도 피하는 것이 좋다. 멀리서 바라보기 때문에 망원경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낙동강 철새도래지”를 찾아가는 방법은 일반국도 25호선을 따라 대구에서 상주 방향으로 가다보면 구미시 해평면 해평리 도로변에 “낙동강 철새도래지”라는 진입로 알림판이 보여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철새탐조여행과 함께 인근 태조산 도리사도 둘러보길 권한다. 도리사는 신라에 불교를 처음으로 전파한 아도화상이 신라 눌지왕 때에 창건한 최초의 가람으로 알려져 있다. 산아래 주차장에서부터 울창한 소나무가 늘어서 있는 오솔길이 잘 꾸며져 있어 호젓한 겨울산책로로 좋다.

경내에는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적멸보궁과, 보물 470호로 지정된 화엄석탑, 단아한 멋이 고풍스런 태조선원, 그리고 아도화상이 도를 닦았다는 좌선대 등의 볼거리가 있다. 또한 산중턱에서 울창한 숲 사이로 멀리 보이는 선산, 고아, 해평 일대 들판의 풍경이 겨울여행의 운치를 더해준다.





청정 동해바다에서 건져올린 자연의 맛 "대게"


영덕과 울진의 앞바다에는 해안에서 수십km 떨어진 지점에 남북으로 태백산맥과 나란히 왕돌섬 또는 왕달섬이라 부르는 바위군이 있다.

이 왕돌섬 주변 바다가 경북 동해안의 특산물로 겨울 별미인 "대게"의 주산지이다. 여기서 잡아온 대게는 울진 후포항과 영덕 강구항, 포항 구룡포항 등지에서 위탁판매를 거쳐 전국으로 팔려나간다.

대게는 게가 크다는 뜻이 아니라 몸통에서 뻗어나간 다리 모양이 대나무처럼 마디가 있으며 길쭉하고 곧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다른 바다게(붉은대게, 참게, 털게 등)와는 달리 속살이 쫄깃쫄깃하고 담백해서 맛이 좋아 예로부터 궁중에 진상되어온 명물로 그 명성은 멀리 일본에까지 알려져 있다

속살이 가득 찬 제철 대게는 통째로 찌서 살을 발라먹는 맛도 일품이지만, 살을 발라먹고 난 후 대게의 몸통부분에 차있는 게장을 밥과 함께 참기름과 김가루를 조금 뿌려 비벼먹는 게장비빔밥을 즐기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다.

제철을 맞은 대게를 맛보기 위해서는 포항 구룡포항과 영덕 강구항, 울진 후포항 등 대게 요리 전문식당이 밀집한 곳을 찾으면 갓 잡아 올린 신선한 대게를 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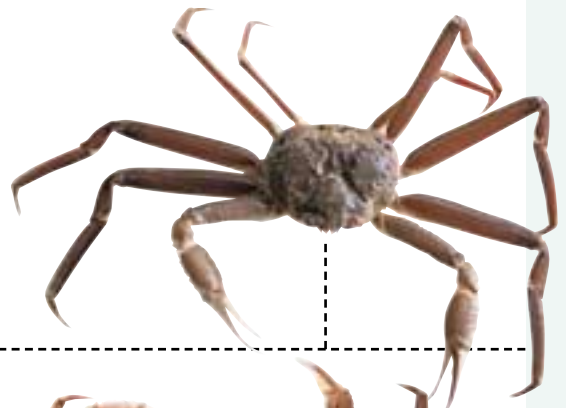
또한 대게의 시세는 어획량과 크기, 시기에 따라 변동이 있다. 



대게 구별법

[국내산 대게]

색깔이 밝은 빛을 띠며 다리가 대나무처럼 뻗어보인다.



[러시아산 수입 대게]

다리와 몸통 전체에 하얀 석회가 많이 붙어있다.



[킹크랩(왕게)]

러시아산으로 몸통과 다리 전체에 가시가 돋아있다.







겨울철 미식가들의 입맛을 돋우는 과 · 메 · 기

추운 겨울이면 생각나는 음식들이 있다. 쫄깃하고 고소한 맛으로 애주가들에게 겨울안주로 사랑받고 있는 “과메기”도 대표적인 겨울 음식이다.

예로부터 포항지역에서 생산된 과메기는 청어나 꽂치를 꾸득꾸득하게 말린 것으로, 배를 따 내장을 꺼내는 것 외에는 일절 가공하지 않은 자연상태로 바람에 말리며 기름을 제거하고 발효시켜 반쯤 건조한다.

청어의 눈을 꼬챙이로 꿰어 겨울철 설한풍에 말렸다고 해서 관목어(貫目魚)라 불리던 과메기는 60년대 이후 동해안 청어 생산이 줄어들면서 대신 꽂치를 말려 생산하는 겨울철 식품이다.

기온이 떨어지는 11월 이후 잡힌 꽂치를 농가 부엌의 살창에 걸어두면 빠져나가는 연기에 그을고 밤에는 얼었다가 낮에는 풀리는 과정을 거쳐 고소하고 쫄깃한 맛의 과메기가 된다.

내장을 제거하고 껍질을 벗겨 손질하기가 번거롭기는 하지만 돌미역과 배추잎 등에 마늘과 잘게 썬 잔파를 함께 넣어 찜을 써서 초고추장에 찍어 먹는 맛이란 그야말로 일품이다.

포항의 죽도시장 등에서는 잘 손질한 과메기를 포장해서 판매하기도 하고,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주문을 받아 전국으로 배달해주기도 한다.

도민들의 문화 갈증을 해소하는

오아시스

요즘 대도시에서 크고 작은 음악회와 전시회, 연극공연 등 문화행사를 접하기는 어렵지 않다. 일년 내내 이어지는 각종 공연과 전시는 사람들의 감성을 풍성하게 하고 생활의 활력소를 주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 경상북도와 같이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으로 이루어진 곳에서는 대도시의 경우처럼 문화행사를 접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대도시와 중소도시 그리고 농촌지역은 인구와 산업생산 등에서 느끼는 심각한 격차와 같이 문화를 누리는 것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시·군 문화예술회관이 도민들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는 소중한 “오아시스” 역할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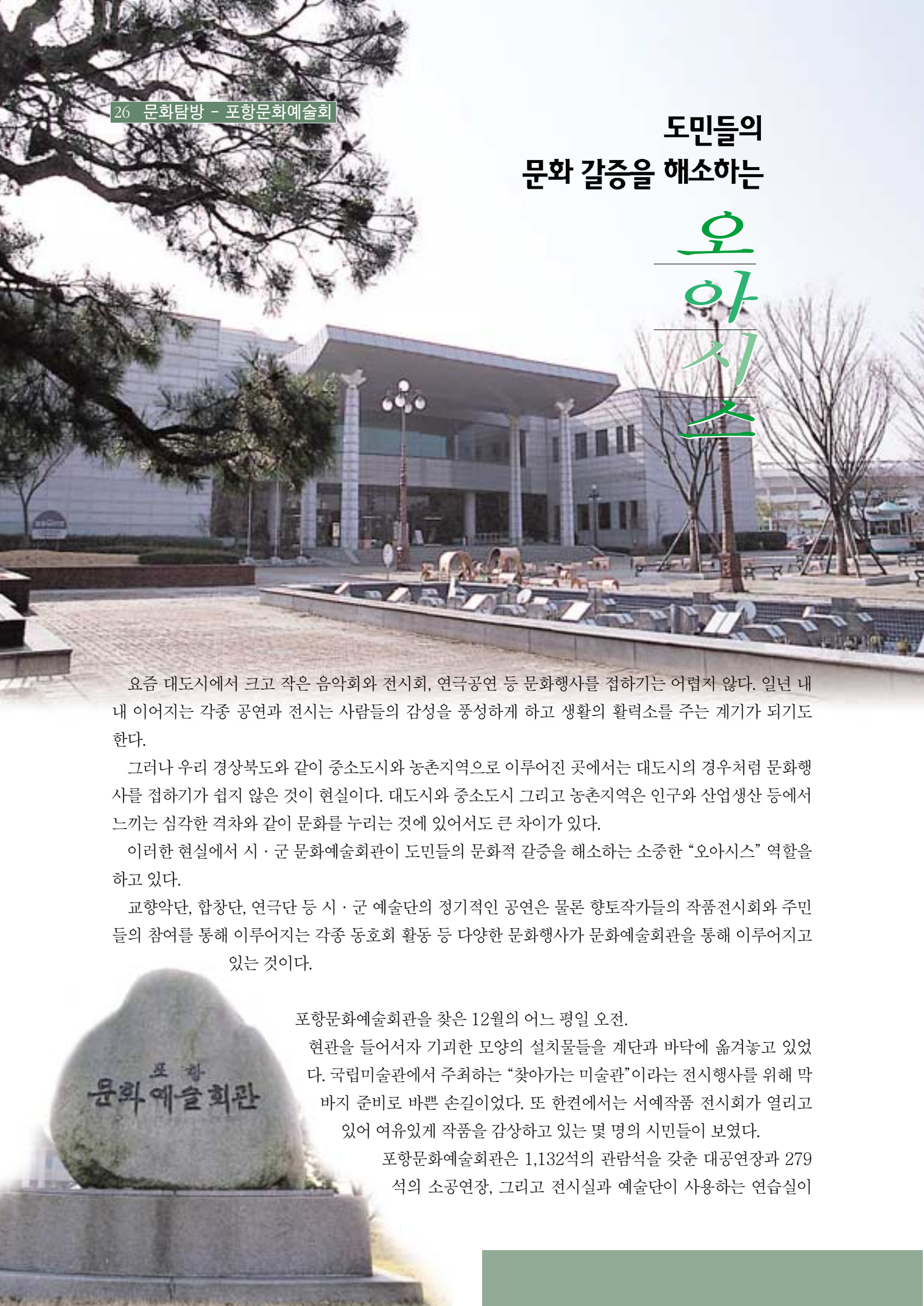
교향악단, 합창단, 연극단 등 시·군 예술단의 정기적인 공연은 물론 향토작가들의 작품전시회와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는 각종 동호회 활동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문화예술회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포항문화예술회관을 찾은 12월의 어느 평일 오전.

현관을 들어서자 기괴한 모양의 설치물들을 계단과 바닥에 옮겨놓고 있었다. 국립미술관에서 주최하는 “찾아가는 미술관”이라는 전시행사를 위해 막바지 준비로 바쁜 손길이였다. 또 한편에서는 서예작품 전시회가 열리고 있어 여유있게 작품을 감상하고 있는 몇 명의 시민들이 보였다.

포항문화예술회관은 1,132석의 관람석을 갖춘 대공연장과 279석의 소공연장, 그리고 전시실과 예술단이 사용하는 연습실이

포항
문화예술회관





9개소 등 각종 공연과 전시를 하기에 손색이 없는 시설이었다. 물론 음향, 장비, 무대시설 등 공연을 보조하는 주요장비들도 잘 갖춰져 있다.


또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양강좌를 개설하여 명사초청강연, 연예인초청공연, 취미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좋은 평가를 받아 올해부터 시민대학으로 변경하여 정기적인 강좌와 강연을 개최하여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다.

이에 지난 '95년 개관 이후 그동안 시립예술단의 정기공연을 무료화하여 시민 공연관람 문화의식 수준을 향상시키고, 그로 인해 시립예술단의 연주기량도 향상함에 따라 앞으로 시립예술단의 공연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에 관심있는 시민들을 유료회원으로 모집하는 “문화가족”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각종 공연·전시정보 및 편의를 제공하고 유료공연 입장료 할인 혜택과 특별공연 초청, 좌석 사전예약제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역민의 문화공간인 문화예술회관이 앞으로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준높은 공연·전시 행사를 유치하여 도민 모두가 소중한 문화적 경험을 공유하기를 기대해 본다.

우리 경상북도는 세 차례에 걸쳐 “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문화엑스포를 세계 각국으로 수출하는 등 세계속에 “문화웅도”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위상에 걸맞게 모든 도민들에게 수준높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문화예술회관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등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우수한 기술력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래를 선도

경상북도는 도내 220여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기술력과 경쟁력이 우수하고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4개 벤처기업을 「경북 스타벤처기업」으로 선정하였다.

(주)지엠지



(주)지엠지는 터널, 도심지 굴착 및 사면 절개지 공사시 발생하는 지반 불안정문제를 실시간 측정하고, 도화, 해석 및 경고음 발생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업체이다.

이 업체는 안전진단 특히, 자연재해로만 인식되어온 사면붕괴와 같은 문제에 대한 공학적인 해답을 제시하고 사전 대비책을 마련함으로써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지난 2000년 11월 MBC와 KBS 양대 방송과 한국일보 등에 세계최초로 광섬유 시스템을 경부고속도로 대절토 사면(서울기점 278km 왜관 연화재, 신동재 사면)에 적용하여 우수 시공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주)이리콤




(주)이리콤은 광전송 시스템용 WDM(파장분할다중화, wavelength division multiplexing : 광전송시스템의 하나로 빛의 파장을 달리하는 여러 채널을 묶어 하나의 광섬유를 통해 전송하는 것) 장치 및 광부품을 개발·제조하는 업체로 경북테크노파크 신기술 보육사업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있는 유망기업이다.

최근 초고속 인터넷 사용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고속의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수요 증가와 더불어 백본망(Back Bone, 네트워크에서 모든 네트워크가 붙어 있는 최상위네트워크)으로부터 가입자 단말사이의 병목현상은 구리기반 솔루션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고화질의 동영상·고음질의 사운드·VoIP(음성데이터통합,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등에 대한 인터넷 사용자의 욕구는 결국 일본에서 현재 진행중인 “집집마다 광섬유”를 가설하는 FTTH(광섬유의 가정화, Fiber to the Home)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주)이리콤은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광전송 용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기술인 WDM 장치와 모듈을 양산하고 있으며, 독일 TUV 인증센터에서 ISO 9001 인증을 획득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아 현

재 삼성, KTF, SKT 등 국내 기업은 물론 유명 해외기업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업체는 실시간 자동계측기기 및 시스템업체인 (주)지엠지, 진공이온펌프업체 (주)브이엠티, 광부품 및 모듈업체 (주)이리콤, 공정에너지 저감기술업체 (주)피엔아이컨설팅 등 4개 업체로, 선정은 도내 시·군과 테크노파크, 창업보육센터 등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아 (재)경북테크노파크, 벤처기업협회 등 벤처관련 전문가들이 성장성, 기술성, 경영능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등 심사위원회를 거쳐 심사위원들의 종합평가를 통해 이루어졌다.

(주)브이엠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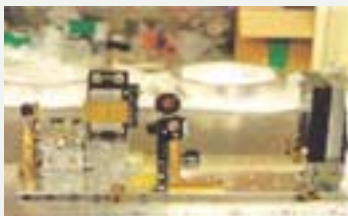
(주)브이엠티는 진공이온펌프 생산 및 나노계측기술 전문업체이다.

주력사업인 진공이온펌프는 진공용기 내부의 기체분자를 이온화해 티타늄과 같은 활성도가 높은 물질에 흡착시킴으로써 배기작용을 하여 진공을 만드는 장치로 고도의 청정도가 요구되는 가속기나 표면분석, 나노과학 등에 활용된다.

특히 그동안 진공이온펌프는 기술력이 앞선 미국 등지에서 수입에 의존하던 것을 순수한 국내기술로 개발한 것으로, 진공도가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 지난 2001년 12월 한국신기술인증(NT)을 획득했으며, 2001년 대한민국기술대전에서 산업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할 만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진공이온펌프



이온펌프controller



XHV챔버




분광기내부

(주)피엔아이컨설팅

(주)피엔아이컨설팅은 생명공학의 응용분야에 IT기술을 접목한 BIT 융합신기술로 우수한 신약을 연구·개발하고 있는 업체이다.

「BIT 융합신기술」이란 IT기술을 기반으로 생명현상과 관련된 생체콘텐츠를 개발, 공유, 서비스하기 위한 생체핵심 기초 및 첨단 응용 기술을 말하는 것으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건강이나 복지, 삶의 질 향상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천 핵심 및 응용기술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 업체는 2002년 12월 정보통신부로부터 ‘마이크로어레이 데이터 이상 검출 및 보정시스템 개발사업’으로 2002년 제2차 우수신기술 지정 및 지원 사업자로 선정되었으며, 특히 올해 ‘대한민국기술대전’에 참가하여 세계 최초로 참복어 추출물과 한방생약제재를 이용하여 BT와 IT의 융합신기술로 만든 기능성 식품인 ‘수복강령’을 선보여 생명공학의 선두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경상북도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실라리안 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 보세요!






경상북도가 품질을 보증하는 중소기업 공동브랜드인 '실라리안' 제품을 한 곳에서 전시·판매하는 전문쇼핑몰이 탄생했다.

지난 9월 1일 개장한 「실라리안 홍보전시판매장」은 도내 20여개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465개 품목의 다양한 상품을 갖추고 있으며, 도내 시·군에서 생산하는 특산물 판매행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지상 1, 2층으로 구성된 매장은 1층에 넥타이, 양말, 장갑, 머플러, 골프가방, 화장품, 경북특산코너 등이 있고, 2층에는 주방용품, 청동장식품, 도자기, 사무용 가구, 의자, 전화기, 침구류, 카페트 등 사무·생활용품 코너를 배치하였다.

특히 홍보전시판매장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인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법원 맞은 편 대로변에 위치하여 왕래하는 사람들의 눈에 쉽게 띄어 자연스럽게 실라리안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는 홍보효과를 보고 있다. 


이제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실라리안을 만나 보십시오!

고품격 생활브랜드, 실라리안 홍보전시판매장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개점시간 - 10:00 ~ 20:00)




2003년도 한국학 국제학술대회 개최

한국국학진흥원에서는 지난 11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동안 한국국학진흥원 대강당 및 세미나실에서 하와이대학 한국학연구소,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가 공동으로 참여한 가운데 ‘국학연구방법론으로서의 지역학 - 한국학과 안동학’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2003년도 경상북도 에너지절약대상 시상

도에서는 에너지 절약관리를 우수하게 실천한 기업,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하는 2003년도 경상북도 에너지절약대상 시상식을 11월 26일 구미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고 대상에 동국제강(주)포항제강소, 최우수상 (주)한국축매, 우수상 대림로얄보일러(주)와 익산공업, 포항여중, 그리고 에너지절약을 우수하게 실천하였거나 교육 홍보 등에 기여한 개인유공자 5명 등을 시상하였다. 


재정집행실적평가에서 대상 수상

도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전국 16개 시·도 및 23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지방재정집행실적평가」에서 예산의 배정, 사업발주, 자금집행, 추진체계, 지방재정조기집행 노력도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 대상을 수상, 상사업비로 특별교부세 2억원을 받게 되었다. 


동해 바다정화사업에 88억원 투자

도에서는 깨끗한 청정해역 동해안을 유지 보전하고 해양환경 개선을 위하여 해저에 퇴적된 오염물질 준설, 수산물공동폐수처리시설 설치 등 어자원 보호와 육성을 위한 바다정화사업에 2004년 총 88억원을 투자하여 해양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제12회 경상북도 자활자립대상 안동시 박한철씨

도에서는 11월 19일 안동시 시민종합회관에서 이의근 도지사를 비롯한 각급 기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2회 경상북도 자활자립상 시상식을 개최, 안동시 박한철씨가 자립대상을 수상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자활자립에 성공한 21명이 자활자립상을 수상하였다. 

전국 임도평가 최우수기관상 수상

경북도는 산림청이 주관한 2003년도 전국 임도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12억5천만원과 기관표창을 수여받아 2000년 우수상, 2001년 최우수상, 2002년 우수상에 이어 4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농촌에 폐비닐 수거전용기 공급

경북도는 농촌 환경오염의 주범인 폐비닐을 효과적으로 수거하기 위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폐비닐 전용수거기’를 공급해 나가기로 하고, 우선 내년에 1억2천5백만원을 투입하여 비닐사용농작물 재배면적이 많은 지역과 멀칭비닐 사용 작목반 등에 폐비닐 전용수거기 50대를 우선 지원 공급키로 했다. 



제183회 정례회 결산

2004년도 예산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및 예결특위 거쳐 가결

상임위원회별로 도와 교육청 및 도내 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경상북도의회(의장 최원병)는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제183회 정례회를 개최하여 이의근 도지사로부터 2004년도 경상북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경상북도 및 교육청 각 실국과 도내 각 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12월 1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도정 전반에 대한 도정질문을 실시하고, 12월 2일부터 4일까지 3


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4년도 경상북도 및 교육청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각 실국별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 5일부터 12월 15일까지 11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종택)의 종합심사를 거친 후, 12월 16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04년도 본예산(안)을 의결 처리하였다.

이어 12월 17일부터 18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각종 안건을 심사한 이후 12월 19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에서 심사한 안건 및 현안사항 등의 안건을 의결하고 30일간의 정례회를 폐회하였다.

2004년도 본예산 총규모 2조7,449억4,500만원 확정



한편, 2004년도 경상북도 및 교육청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대로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경상북도소관 본예산의 총규모는 2조7,449억4,5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2조4,707억2,610만원보다 11.1% 증가하였다.

이는 당초 제출된 2004년도 본예산(안) 2조7,449억원중에서 44건 73억7,050만원을 삭감하고, 25건 52억5,710만원을 증액하여 21억1,340만원의 순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돌린 것이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구미운수연수원 행정사무감사(11. 26)



▲ 예천교육청 행정사무감사(11. 22)



▲ 성주소방서 행정사무감사(11. 25)



▲ 축산기술연구소 행정사무감사(11. 24)



▲ 자연환경연수원 행정사무감사(11. 26)



▲ 포항의료원 행정사무감사(11. 21)



권경호 의원 (기획위원회)

경북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도청을 북부지역으로 이전할 용의, 도청 이전에 관한 도지사의 구상은, 농가의 다양한 소득원 개발 차원에서 민물고기연구센터의 시설 현대화와 내수면 어업의 기반 확충이 필요한데 도의 대책은, 전국 수준의 우수 농특산물 개발을 위한 대책, 농업의 규모화·현대화·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해 농산물 통합 브랜드를 개발할 의향 등에 관해 질문했다.



김순건 의원 (교육환경위원회)

포항 심해해양수산자원연구소 설립을 제안, 도와 교육청의 금고가 농협으로 이관돼 연간 당기 순이익이 약 140억원 창출되고 있지만 농협의 지역에 대한 지원 및 기여가 미흡하다고 생각되는데 농협의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액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 농협과 금고 계약기간 만료된 이후 지역은행과 금고계약을 추진할 계획은, 일부 개발지역 학교의 교실난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 등을 질문했다.



임원식 의원 (산업관광위원회)

위기에 처한 농업대책으로 유기농법에 의한 친환경농업이 유일한 방안으로 생각하는데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도 차원의 투자계획이나 지원방안은, 울진군 친환경 농업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도 차원의 지원방안은, 근해 대형트롤어선과 기업형 쌍끌이 어선의 조업을 수산자원의 보호차원에서 단속할 수 있는 법률 또는 조례 제정을 검토할 용의 등에 대해 질문했다.



장 옥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경로연금과 노인교통비 등 각종 경로우대 비용의 지급액을 인상할 용의, 노인건강 진단사업의 건강진단 수혜의 폭을 확대할 용의, 되풀이되는 자연재해와 관련하여 상습침수지역과 위험축대, 산사태 발생예상지역, 강·하천범람지역 등에 대한 특별관리대책은, 재난상황실과 소방본부 등 다원체제로 되어 있는 현재의 재해대책시스템을 단일체제로 만들 용의 등을 질문했다.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안건처리

경상북도의회(의장 최원병)는 12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184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이의근 도지사로부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 후, 12월 26일 본회의를 열어 2003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을 의결처리하고 폐회하였다.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조류독감방역대책비 5억원 순증액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중택)에서 심사한 2003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12월 26일 본회의에서 확정되었다.

2003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5,657억원보다 693억원 증액된 3조6,35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조류독감 방역대책비 5억원을 순증액시킨 것이다. ➡




병산서원

지정번호 : 사적 제260호

지정일자 : 1978. 3. 31

소재지 : 안동시 풍천읍 병산리 30

안동시 서남쪽에 위치한 화산 자락, 낙동강 건너의 병산 절벽이 바라보이는 위치에 병산서원이 자리하고 있다. 병산서원은 서애 류성룡과 그 아들 류진을 배향한 서원이다. 그 전신은 풍산현에 있던 풍악서당이었고 1572년(선조5) 서애 류성룡이 지금의 위치로 이전하였다. 서애가 타계하자 후학들이 존덕사를 세워 그의 위패를 봉안하고 병산서원으로 개칭했다. 1620년(광해군12)에 서애의 위패를 여강서원으로 옮겼다가 1629년(인조7)에 다시 현 위치로 옮겨와 주향하고 있으며, 철종 때에 사액을 받았다.

외삼문인 복례문을 들어서면 왼쪽에 연못이 있고 건너편에 높은 석축이 있는데 이 석축의 계단을 오르면 만대루가 동서로 길게 놓여 있다. 누 밑을 지나 계단을 다시 오르면 마당 건너편에 강당인 입교당과 그 앞 양측에 동·서재가 마주보고 있는 강학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동재 뒤편 담장밖에는 고직사가 자리잡고 있다. 강당 뒤편에는 사당인 존덕사 공간이 전체의 중심축에서 약간 벗어난 오른쪽 높은 곳에 별도로 일곽을 이룬다. 전면 담장 가운데에 내삼문이 나있다. 사당영역 좌측에는 장판각을, 우측에는 전사청을 두었다. 중심축선상에 외삼문-누각-강당-내삼문-사당을 배치하는 일반적인 방식과 달리 사당공간이 중심축에서 살짝 벗어나 있으나 전체적인 조화로움은 잃지 않고 있다. 




개목사 원통전

지정번호 : 보물 제242호

지정일자 : 1963. 1. 21

소재지 : 안동시 서후면 태장리 888

개목사는 봉정사 영산암 위쪽의 한적한 산길을 따라 도보로 30분 남짓한 거리에 위치해 있다. 원래 흥국사로서 신라 신문왕때 의상대사가 지은 절이라 전한다. 1969년 원통전을 해체·수리할 때 발견된 상량문에 의하면, 이 건물은 1457년(세조3)에 지어진 것으로 “옛날 안동지방에는 맹인이 많았는데 여기에 절을 세운 뒤 눈병이 없어져 ‘開目寺’라 했다”고 한다.

한때 절의 규모가 99칸에 달했다는 전설과는 달리, 현재 개목사의 규모는 매우 단출하여 중심 전각인 원통전과 요사채가 있을 뿐이다. 원통전은 정면3칸 측면2칸의 건물로 조선 초기에 지어진 주심포식 맞배지붕이다. 건물 전면에 퇴칸을 놓고 마루를 깎아 접이 독특하며, 일반적인 주심포와는 달리 헛침차에서부터 보아지가 튀어나와 퇴보와 종도리를 받도록 하여 특별히 고안한 공포 구성도 독특하다. 조선 초기의 몇 안되는 건물로서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희망2004 이웃돕기캠페인

“함께해요 이웃사랑”

사랑을 나누면 희망이 자랍니다.
실천하는 사랑이 있어 세상은 조금씩 따뜻해집니다.

함께해요 이웃사랑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상징인 「사랑의 열매」는 나·가족·이웃을 뜻하는 세 개의 열매를 하나로 묶어 더불어 함께 사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가자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2003. 12. 1 ~ 2004. 1. 31

‘희망 2004’ 이웃돕기 캠페인에 참여하시려면...

- 사랑의 계좌를 이용하세요.
- 사랑의 자투리 991모금운동에 참여하세요 | 홈페이지, 우편 또는 전용전화(053-255-0991)
- 사랑의 전화를 돌려주세요 | ARS 060-700-0060, 060-700-1212
- 방송사, 신문사등 언론기관 모금행사에 참여하세요.
-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세요 | 홈페이지 또는 전화신청
- 단체, 직장별 모금행사에 참여하세요 | 모금행사 지원 안내(053-253-8844)

사랑의 자투리
991 캠페인
매월 991원 자동이체

ARS모금
060-700-0060
060-700-1212

틀게이트모금
경주·영천·경산·왜관·남구미
구미·김천·남인동·상주

사랑의 계좌

예금주: 경상북도공동모금회

- 농협 731-01-002268
- 대구은행 021-05-780444-001
- 새마을금고 5622-02-001378-3
- 국민은행 624-01-0129-338
- 기업은행 161-019757-01-035
- 서울은행 80301-1133806
- 수협 601-01-069901
- 우체국 700674-01-001682
- 제일은행 760-10-011301
- 조흥은행 974-01-003845
- 우리은행 034-413547-13-001

- 송금시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 기탁하신 성금은 연말정산시 전액 소득공제됩니다.



경상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700-413 대구광역시 중구 성북3기376-25KSB빌딩2F TEL: (053)253-8844-5 FAX: (053)431-8002 http://www.kbchest.or.kr